

## 가까운 日本, 먼 日本

張 潤 宇

誠信女大大學院 産業美術學科長

일본이야말로 複製品.

「영국에 로마의 유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은 로마의 유적인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미술 5000年展이 일본에 소개되는 마당에서 아사히(朝日) 신문이 실토한 특집기사 중 일부이다.

「민중이 낳은 자연의 모습—일본엔 없는 황금공예 石像」이란 찬탄과 함께 「行 이래 外邦에 대하여 언제나 싸우며 국토를 지켜 나온 것이 한반도의 특징이었다. 隋·唐의 침략을 거꾸로 쳐부신 고구려, 唐을 물리친 신라 豊臣秀吉의 침략도 민중이 물리쳤다. 漢으로부터 晋에 이르는 강대한 중국을 지배한 것은 漢代를 제외하면 20년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식민지화하여 비애에 빠진 한국사람들을 보고 뛰어난 美學者의 눈에도 먹구름이 끼었으리라. 확실히 본질은 따로 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한 기반이 되었던 것도 민중의 저항이었다」라고 쓰기도 했다. 또한 柳宗悅(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일본 천황의 친동생이며 동양사학자인 三笠 官崇仁은 「한국의 문화가 이처럼 뛰어난 것인 줄 미처 몰랐었다. 잠시 보고도 일본미술사를 고쳐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고 일본 문화청장관 安嶋, 京都국립박물관장 松下 降章, 朝日신문 사장 및 史學者, 教授, 作家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찬탄을 마지 않았다.

76년 2월 23일 京都에서 스타트하여 5개월간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얻은 찬사였다. 이 展示는 이후 美国全域에서도 비슷한 갈채를 받았다.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질과 미적 감각의 역사를 그네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柳宗悅을 「大正시대에 한국미술을 가장 잘 이해했고 그 미술품을 창조한 민족에게 경애의 눈을 쏟은 인물」이라 했듯이 그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 땅에 1920년 5월 3일에 첫 발을 디뎠다.

한국의 도처에서 그가 절찬한 민예품을 발견하고 일부 민중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파괴하는 불행을 목격했다.

그는 한민족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는 도자, 목공예품 등의 보존과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여 여러층을 설득하고 조선민족미술관을 서울에다 건립하여 많은 민예품을 수집 보관하기에 이르렀다.

「당신네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쓰고 파괴하고 있는 그 木物이나 도자기는 바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볼 수 없는 우수한 예술이다」라 설파했고, 기금을 만들기 위해 성악가인 부인을 내세워 민족미술관 기금모집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민족지 동아일보에서도 유중열만큼은 진정한 한국의 벗으로 삼고 협력을 다해 주었다. 조선총독부가 청사(지금의 중앙청)를 짓기 위해 광

화문을 열어 내려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항의를 못하는 피압박민족의 설음을 씹기만 할 따름인데 그는 앞장서 통곡하는 글을 일본의 政造誌에 연재하였다. 이 글을 읽은 한국 사람들은 소리죽여 눈물을 흘렸으며 결국 광화문은 移轉하는 정도로 큰 수난을 면했다.

이로 인해 日警의 要視察人物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의 저서는 「韓國과 그 藝術」로 번역되어 지금도 시중에서 한민족의 뛰어난 점을 예찬하고 있다.

한민족에 가지고 있는 日本의 예찬과 혐오, (우리의 것을 複製함을 인정하는가면, 역사를 歪曲하는 誇리부당한 점)를 굳이 지적할 의도는 없지만 한두가지 밝혀 두고 싶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얼마 뒤 일본의 후지야마外相이 국제친선을 꾀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런던공항에 내리자마자 그의 눈앞에 여러개의 상품이 나열되면서 한 관계자가 물기를

「어느 것이 일본제이고 어떤 것이 영국제입니까?」라고 비꼬았던 것을 상기할 때,

일본의 급진적 성장의 그늘에는 뼈아픈 역사와 치욕적인 국면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수용소안의 병사가 쇠붙이를 조립시켜 피스톨形의 개스 라이터를 만들어 낸다. 옷쓸대는 병사에게 다른 포로가 던진 말이

「합부로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구……벌써 일본에서 만들어 냈을지는 모르니까, 일련의 풍자적인 그런 外國人의 말 속에서 전후의 日本은 전화를 딛고 극복하기 위해 관민일체가 된 본질적인 디자인 활동의 기반을 日本상품 속에 다 마련하고 있었을 것이다. 日本通産省에 디자인課가 설치되고 輸出디자인法이 제정되고, 機械디자인센터, 雜貨意匠센터, 纖維意匠센터, 도자기意匠센터 등이 차례로 설치되었으니 우리 한국디자인포장센터보다 약 10년을 앞서(1958년)서 발족을 했다.

몬트리얼世界博覽會가 열리는 동안 캐나다의 신문기사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한 때, 일본은 歐美의 제품을 모방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보였는데 거기에 공업력이 플러스되어 오늘의 패튼을 형성시켰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의 발걸음을 역사적인 사실로써 받아드리고 있다.」

西獨의 한 기술자는 「일본은 우리의 물건을 흉내 내는데 급급하고 있는데 모방이 진짜보다 더 우수할순 없잖느냐, 이렇게 자위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독의 카메라는 성능이나 디자인면에서 일본을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의 ID (Industrial Design) 성장은 눈부시게 달라졌으니, 예컨대 1960년에서 69년에 이르는 10년간의 GNP 성장율을 비교해 보면, 英國 126, 美國 147, 西獨 155, 伊太利 154, 佛蘭西 166, 蘇聯 176, 日本 258인데 불과 10년 동안에 미국과 대영제국을 배에 가까운 숫자로 앞질렀으니 「Economic Animal」이란 대명사가 나올 법한 양칼진 면을 보여주고 있다.

一衣帶水니 韓日 친선이니 하는 老政客들의 속셈을 야누스의 두얼굴 같아 알 수가 없다. 어쨌서 일본은 세계에서 쏠린다음으로 한국인을 미워하는가. 「일본미술사를 고쳐 써야 할 것」 같다는 天皇 동생의 말처럼 한국에 영향을 받은 역사를 지우고 싶어서인가.

戰禍를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끈기와 성장에 시기를 느낌인가. 얘기를 한곳으로 좁혀 藝術新潮에 실린 福田恒存(京都산업대학교수)의 글이나 조용히 음미하겠다

『……만나는 것이 인연이라면 헤어지는 것도 또한 인연이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여 나는 고려청자보다도 이조백자에 마음이 끌렸었다. 뒤에서 흰빛이 튀어 나올듯이 보이는 影靑, 혹은 푸르름 속에 감춘 듯한 亂白, 이兩者에 미묘한 差가 있다. 무엇이라고 해도 나에게서 그 푸름이 회미하면 회미할수록 마음에 들었다. 회다고 보고 있으려면 푸른 맛이 떠오르고, 뚜렷하게 푸르게 보였던 것이 잿빛같은 흰빛을 띄어 온다.

그 은은한 맛이란 일품이다. 사람에게나 물건

에게나 만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2 차대전중 한반도를 경유하여 북은 하르빈, 西는 몽고에서 黃河하반에 있는 包頭, 南은 상해, 杭卅까지 2 개월의 여행을 하면서 단 하루밤 밖에 머물지 않았던 당시의 京城(서울)에서 李王家의 고려청자를 보고 처음으로 靑磁의, 아니 磁器의 아름다움을 알았다.

나에게 이왕가의 청자는 문자 그대로 靑天의 벽력이었다.

그뒤 일개월 후 북경의 紫金城과 그밖의 여러 곳에서 중국의 청자를 볼 수도 있었지만 오늘의 나에게서는 청라라고 말한다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왕가의 그것 밖에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은 첫사랑과 같은 것일 꺼다.

...내가 고분발굴에 관하여 흥미를 갖고 있는 독자(日本人)에게 보고해 둘 것이 있다. 天馬塚 발굴은 73년 4월 6일에 시작된 일이며 그 해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가뭄이 들었던 모양인데 金正基(발굴지휘자)가 금관을 발굴하여 그것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돌연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발굴조사보고서 중의 氏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金冠이 들어날 때쯤 그때까지 개였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천둥과 함께 비가 내렸다. 全員 급변한 날씨에 놀라 경건한 마음으로 금관을 다루어 씻어 냈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게 밤

하늘은 씻은 듯이 개여 있었다. 작업이래 비 때문에 일을 못했던 것이 4日 반나절이었다. 98호분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南墳의 금관을 들어 내려 했을 때 대낮이었는데도 하늘 전체가 저녁노을과 같이 물들었다」.

金씨는 「우연일런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말로는 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고 후에 말했다. 나는 그때 「아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사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연현상을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달여행도, 제트기도, 공해도 모두가 우연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가장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은 한국민족의 미술사는 제쳐 놓고서라도 그 배경이 되는 역사에 관해서 너무나 소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시절에 동양사라는 이름의 중국사를 배우고 국사를 공부했다. 한민족은 어디서나 端役으로 등장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한민족의 역사를 알고자 하더라도 적절한 책이 없었다.

부여에서 공주로 향하는 길에 白馬江을 안내해 달라고하여 扶蘇山과 백마강에서 나는 天智2年八月 백제를 돕기 위해 달려온 일본군이 白村江에서 大敗를 당하고 도망쳐 돌아갔을 때 唐과 신라의 대군이 출동한 것이 이 근처쯤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